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서관사업소, 창원산업진흥원**

일시 2019년 06월 13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올바른 독서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도서관사업소,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 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 누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하소. 불편하니까 하지 말고... .. 앉아서 하면 되지. 편리하잖아.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강문선 의창도서관장입니다.

최학권 성산도서관장입니다.

배종광 마산합포도서관장입니다.

유효연 마산회원도서관장입니다.

박우식 진해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은 부서별 10건씩 총 50건이며, 개별사항은 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도서관 소관 각 5건, 진해도서관 소관 6건으로 총 26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 개별사항으로 감사자료 527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창도서관 기본현황 자료, 자료실 도서구입 현황,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 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운영 실적 순입니다.

다음, 성산도서관 소관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49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성산도서관 기본현황 자료, 자료실 도서구입 현황,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 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성산 인문학 강좌 운영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감사자료 569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마산합포도서관 기본현황 자료, 자료실 도서구입 현황,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 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도서관 갤러리 운영 현황 순입니다.

다음, 마산회원도서관 소관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89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마산회원도서관 기본현황 자료, 자료실 도서구입 현황,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 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 운영 현황, 찾아가는 책이야기 운영 현황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도서관 소관 개별사항은 감사 자료 611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총 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진해도서관 기본현황 자료, 자료실 도서구입 현황,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 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진해 기적의 도서관 시설 및 운영 현황 순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59억 6천 9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7천 9백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6%인 4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서관사업소 전 직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직제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17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예.

페이지 517페이지, 2018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불용액 2억 2,500정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1억 4,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 불용액 2억 2,000에서 인력운영비에서만 1억 4,00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1억 3,953만 2,000원이 불용액 된 거는 소 전체의 인건비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에 대한 기타직 보수량 국민건강보험, 시간외수당 이런 게 남아가지고 불용으로 처리된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인력 같은 예산은 인건비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조금, 100% 정확한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중간에 수당이나 이런 걸 과하게 책정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를 합한 거라 하더라도 어찌 됐든 불용액의 과반수 이상, 반 이상, 60% 가까이가 인력운영비라, 골고루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반 이상이 인력운영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건비 책정이나 산정을 할 때는 만약에 중간에 나가면 바로 대체인력을 해서 인건비가 지급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수당이 만약에 또 남을 것 같으면 이미 처음 책정할 때 수당을 적정선에서 책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직원들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인건비 이런 걸 직원들 타이트하게 잡으면 중간에 예산 추경하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 사업소의 인건비 이 정도면 조금 이렇게 잘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항상 예·결산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참 넉넉하게 잡는 영역은 참 넉넉하게 잡고요.

너무 돈 없다고 오히려 깎는 데는 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는 단위사업에서 도서관 관리에 들어가지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우리가 결산에서 관항목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단위사업으로 치면 도서관관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전체적으로, 맞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그랬을 때 페이지 519쪽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용역. 청소용역도 있고 내진설계, 의창도서관입니다, 주로.

내진설계용역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여기 하실 때 기간을 좀 표시해 주세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라든지 12월 31일까지 라든지, 그런데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게 '19년도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아마 4월 30일 현재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2019년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지금 의창도서관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박선애 위원 예, 용역 완료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얘기 하는 건 앞에 기간 표시할 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현재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일 기준이 4월 30일이잖아요, 2019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거를 표기해 주면 아직도 2019년 말까지 진행 중도 있고 그 안에 완료된 것도 있고 우리가 보기가 쉽다는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보시면 의창도서관 청소용역을 줬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하고 금액이 틀려요.

그런데 그 결산서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돈입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의창 청소용역하고 결산서상에 그게 시설부대비에 이월금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청소용역비 결산금액하고 여기 적혀있는 거하고 좀 틀려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그거는 2018년도 청소용역비 결산한 거고, 지금 이거는 2019년도 청소용역비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죠. 예산액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2019년이 이제 겨우 아직 4월 30일 기준인데 용역결산 안 됐겠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10% 절감에 의해서 10% 절감 정책에 따라서 예산액과 계약 금액이 차이나는 것 저희 알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이라고 쓰지 말고 완료된 거는 지출액 또는 집행액이라고 써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 10% 정도씩 다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결산액은 돈이 다 남았어요. 3,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청소용역비가. 2018년 청소용역비가, 남겼어요, 돈을.

예산 잡은 데서 돈을 남겼다는 말이에요. 절감을 했죠.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액은 돈이 작게 들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잡아야 되는데 더 많이 잡았어요. 인상을 확 시켰어요. 인상을 더 시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2019년도 의창도서관 청소용역비가 2억 3,672만 9,000원인데 2018년도 예산액은 2억 3,600만원이었거든요. 아, 2018년도는 1억 7,212만 얼마였어요. 몇천만원씩 올랐더라고요.

이것 조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요.

제가 2018년도 예산액과 2019년도 예산액을 대조를 다 해봤거든요.

제가 대조를 다 해봤는데, 분명히 실제 지출된 돈은 절감이 돼가지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는 오히려 돈을 더 인상시켜가지고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이러면 10% 절감액이라는 말이 무용,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금액하고 집행잔액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제가 아까 그 얘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예산은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잡는다고 아까도 인건비도 얘기하셨는데, 2018년도에 같은 업체에 용역을 줘보니까 돈이 남았던 말이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럼 2019년도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18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작게 잡았는데도 몇천만원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작게 잡... .. 아니면 같이 동결해서 잡더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 몇 % 정도 인상이 됐지? 조금 더, 확 몇천만원씩 더 올려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도 계속 기획행정위원회 사무감사 하는 것 TV로 시청을 했는데 전부 다 경상수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부 다 심지어, 작게는 20%에서 40%를 높여 잡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예산 책정에 있어서 저는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87.745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을 하고, 낙찰 금액 잔액이 남기 마련입니다. 마련이고,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낙찰된 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그 낙찰된 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금액대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당초 설계금액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박선에 위원 불용처리를 하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추경에 또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박선에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늘 해오던 일들이기 때문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하는 건 일리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시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박선에 위원 우리가 10% 절감이라는 그 안에 항상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의 예산은 또 더 많이 잡고 그리고 또 남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용액 처리는 여전히 발생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어떤 때는 추경에 안 되면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도 추경이 있는데, 하더라도 정말 맞춰서 하면 안 될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보면 내진보강설계 의창도서관에도 결산서에는 결산에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심사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볼 건데 궁금해서, 이 용역 완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결산에서는 1,722만 7,000만원으로 이 내진설계용역이 결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숫자상으로.

이거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작년엔 내진성능평가를 그제 1,700만원 정도 용역비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박선에 위원 용역비와 평가와 이 차이다, 이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박선에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도서관에 해당되지만 위원회가 동일하게 있죠, 의창이든 성산이든 이제 합했죠?

2개, 전에 2개라서 우리 이우완 위원님 얘기하신 거 이래가지고 운영위원회 하나로 합쳤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작년 행감 때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중복되고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2월달에 조례 개정을 통합해서 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박선에 위원 예, 통합했죠. 그런데 어떤 도서관에는 2개를 다 적어 놓고, 물론 있으니까, 이제 운영 현황이니까, 그렇지요?

또 어떤 데는 하나만 적혀있고 이렇게 조금 해서, 제가 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록을 할 때는 이거를 갖다가 개최를 했든 안 했든 서면 심의로 대체를 했든 안 했든 모든 운영위원회는 다 기재를 해 주시고 통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통일을.

어떤 도서관에는 1개만 했다고 이렇게 딱 돼있고 어떤 데는 2개가 적혀있고 이래서 일단 있는 거는 다 적어서 현황을 넣고, 개최를 안 했으면 ‘……’ 점으로 찍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 질문을 하니깐 개최한 것만, 운영 현황이라서, 개최한 것만 위원회에 넣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53쪽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553쪽을 보시면, 시설공사 집행 현황에서 상남도서관에 화장실 리모델링 및 수유실 설치공사에 용역비가 따로 있고 설치공사비가 따로 있고 전기공사비가 따로 있고 이 3개가 사실은 같은 상남도서관의 화장실 설치를 위한 총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하나 용역비 별도, 전기공사비 별도, 설치공사비 별도 이렇게 파편화시켜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박선에 위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은 제가 보니까 1억 7,000과 전기공사비 1,100, 그리고 설계용역비 1,13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은 그러면 1억 한 5,000 되나요? 1억 7,000, 한 2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박선에 위원 화장실 규모가 어떻게 돼, 여기 보니 8개소하고 수유실 1개에 2억 정도 들어갔다, 그렇지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성산도서관장 최학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남도서관 화장실에 수유실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는,

○박선애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1억 9,400만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1억 5,400입니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1억 9,400만원.

○박선애 위원 1억 5,400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1억 9,400만원.

○박선애 위원 1억 9,400, 그러니까 약 2억, 예, 제가 약 2억이라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1억 9,400만원인데 각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용역, 그다음에 공사, 전기, 이거는 각각 분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 분야는 분리발주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용역 하고, 그다음 공사는 직접공사, 여기에서 빠진 것이 관급자재가 한 2,3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총 공사비는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약 2억 가까이인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화장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화장실 리모델링, 그렇죠? 8개 화장실 리모델링과 수유실 1개에 2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그,

○박선애 위원 예, 맞죠? 1억 9,340만원.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1억 9,400만원.

○박선애 위원 리모델링 공사에, 수유실 1개하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지금 상남도서관은 2002년도에 해서 16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이때까지 보수를 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화장실 배관이 늘 터져가지고 사실 또 요즘은 화장지를 넣게 해가지고 막힘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이번 상남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할 때 배관 직경을 갖다가 100mm 했는데 150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야 화장지가 쪽 빠질 수 있도록 하고,

○박선애 위원 당연히 해야죠, 낡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한 번 다음에 방문을 해서 보면 알겠지만, 리모델링 공사에 한 2억 정도, 수유실도 별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 세부공사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박선애 위원 예, 사업계획서하고 세부공사 내역비하고 조금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결산서에는 CCTV 공사를 한 게 나와 있어요, 의창에. 제가 월요일날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디를 봐도 지금 방금 말한 페이지에 성산도서관 자율학습실에 CCTV 설치한 것 말고는 여기 공사 집행 현황에 CCTV 설치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은 거를 보다 보니까 놓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 결산에는 분명히 CCTV 설치 해가지고 거기 딱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거는 결산심사 때 여기 공사 집행 여기는 없는데 이거는 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한번,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CCTV는 설치공사인데 물품구입 형태로써 조달된 것이거든요. 공사로 줘,

○박선애 위원 물품구입비에 넣습니까?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일단 자산취득비 형태로 해가지고 처리된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 여기,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회계감사, 결산서는 나와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CCTV 공사비가 꽤 크던데... ..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CCTV 결산서는 작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하반기,

○박선애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1년치가 싹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간은 거기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 기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거 언제 공사했는지 퀘스천마크를 붙여놨는데 지금 설명하시니까 알겠 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있는데 한 건도 없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수인 민원발생은 이렇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시민의 소리나 이렇게 올라간 그에 대한 답변은 했어도 집단민원이라든지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민원이 없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 절차 같은 경우 현장에서 할 때 한 분이 민원 제기를 해도 들어보면 다수인 이 불편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혹시 개선사항이 있었는가요? 처리사항이나.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로 사실은 민원발생사항이 많이 요구되는 게 자율학습실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다수 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로 올라가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여기 안에 다수 민원으로 조금은,

○최은하 위원 그니까 한 분이 올리셔도 다수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개선한 점 이 있는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래서 우리가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자율학습실에 조금 환경 개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것 말고 그러면 DVD실이라든지 이런 민원 올라오신 건 아시는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DVD 관련해서는,

○최은하 위원 민원 제기된 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민원 제기된 거는 사실은 한 분이 이렇게 DVD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해 달라고 그 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DVD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출을 해드리면 와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선 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대출을 해드리면 또 와서,

○최은하 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6시까지만 가능하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디지털자료실 같은 경우는 6시까지입니다.

○최은하 위원 가능하고, 현장에서만 볼 수가 있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지금,

○최은하 위원 그런데 창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산하에 있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최은하 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책을 몇 권 빌리면 대출을 다시 DVD도 같이,

○최은하 위원 책을 몇 권 빌리는 조건이 아니고요.

그냥 DVD만 빌릴 수 있게끔, 저녁에도 9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 현장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DVD를 빌려가면 일주일 동안 대출도 해 주거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사실은 창원도서관에,

○최은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민원이 올라오면 한 분이 제기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같은 생 각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된 점이 이때까지 있는지 그걸 여쭙보고 싶은 거거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디지털자료실에 관련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번에 올라온 그거는 약간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노트북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올라왔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휴게실에 될 수 있게끔 돼있고 디지털자료실이 6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도서관마다 또 이렇게 운영시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우리 의창도서관은 6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게실 이쪽으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끔은 해놨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노트북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창원도서관 같은 경우,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 이거는 노트북도 9시까지 저녁에 할 수가 있거든요. 저녁에 가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수요가, 항상 현장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노트북 시간제한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하고 노트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컴퓨터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의창도서관이나 명곡이나 다 시립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6시까지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1인 2시간이고 빈자리가 있을 때는 2시간 더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자리도 몇 개 없다... .. 5군데인가? 노트북 제한돼 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수인 민원발생이 아니라도 한 분이 제기하셔도 그분이 제기하시는 이유가 일시적으로 1번 방문해서 제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 하는데 이런 걸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거다 싶어서 올렸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저번에 한 번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가 안 돼서 저한테 이메일로 오셨고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간 거 관장님 아시죠, 저랑 통화한 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최은하 위원 그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거는 우리가 조금 디지털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그걸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토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디지털자료실뿐만 아니라 한 분이 올리셔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먼저 지난 2018년도 올해죠, 올해. 책의 해를 추진해서 행사도 하고 연간행사로 진행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도 가시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소장님이나 각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 521쪽 있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521쪽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상 단위사업명 조정 이랬는데 처리내용은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할 정도로 복잡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의 지적을 받고 바로 예산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부서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조화작업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즉시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구조화작업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달에 구조화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단위사업명을 조정을 해서 2020년도 예산에는 그걸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냥 위원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서식상 통일을 해야지 누가 봐도 한눈에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해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종화 위원 또 그다음에 바로 뒤쪽 522쪽에 보면 창원형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그 처리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2013년에서 '22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초기 2014년까지는 뭘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으며, 또 나머지 2018년까지 4년 동안은 뭘 했으며, 앞으로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지만 '아,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시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처리사항에 그게 기재가 빠졌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건 사실은 우리 창원시의 도서관 정책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뭐 책의 해 선포를 하고 독서를 강화하는 이런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도서관을 돈 먹는 하마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가시적인 게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도서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시민의 역량이라든지 또 도서관 정책에 따라서 그 도시의 어떤 위상이나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또 589쪽에 보면 회원도서관에서 작년에 그걸 하시겠다고, 상호대차 프로그램 구축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인터넷사업 하신다고 작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589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회원도서관에 관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작년에 그 예산대로 다 구축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회원도서관장 유효연입니다.

지금 그 회원도서관이 낙후되기는 합니다. 하는데, 금년에 사업을 대폭적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데크 설명했고, 보강사업뿐만 아니라 도색이라든지 보강사업이라든지 내부적인 패키징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진단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많이 마쳤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 어떤 시설적인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때 예산에 설명하실 때는 인터넷 상호대차 프로그램 구축,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저희들 금년에 다 구축을 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완료가 되신 거예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회원구에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창원시 전체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집에서 빌릴 수 있다, 그렇죠?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이 도서관별로 전국 도서관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착화 되어가는 걸로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국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전국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그다음에 60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해도서관인데요, 작년에 아마 문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보시면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사항을 보고, 처리사항과 또 올해는 그걸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좀 여쭙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도서관이 2004년도에 개관을 했지요? 지금 이제 15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년이 됐는데 여기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있거든요.

기본급이 131만 762원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본급이 관장은 빼고 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6명의 5명, 그러니까 관리 한 명 빼고 4명의 인건비가

131만 762원이예요, 그렇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건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아닌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최저임금은 아니고요.

직급별로 공무원 수당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그러니까 기본급이 몇 급 몇 호봉에 해당이 됩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지금 관장은,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3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평균 쪽에 가깝게 해서 관장은 6급 5호봉, 팀장은 7급 1호봉, 그다음에 직원, 프로그램, 사서, 행정은 8급 1호봉, 그냥 직원은 9급 1호봉으로 정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1호봉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이제 햇수가,

○이종화 위원 햇수가 가면 그게 호봉이 올라가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직급이 팀장과, 사원, 사서, 전산, 행정이 전부 똑같이 기본급이 131만 762원은 뭐 때문에 이렇죠? 다 올해 새로 들어왔나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건 아니고요. 팀장은 팀장 수당이 약 2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19만 6,764원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기본급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게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느냐는 거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게 또 한꺼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올려주기가 그렇... ..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3,2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건 그만큼 그동안의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셨다는 건 그동안에 계속 누적이 됐던 걸 지금 고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가 힘들다 그러셨는데, 제 말은 여기에 보면 가계보조금이 있고 자격수당이 있어요.

그럼 가계보조금은 한 달에 9만원씩이 나가고 자격수당은 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의 어떤 기준을 해서 자격수당을 한 달에 2만원씩 주고, 가계보조금을 9만원씩을 주는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월 2만원 나가고요.

○이종화 위원 예.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배우자 4만원, 부모는 2만원, 둘째 아이 6만원 이렇게 가족수당이,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가계보조금은 9만원이고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2만원의 자격수당을 받으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이종화 위원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자격증 없는 사람은 다 안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괄적으로 다 2만원씩이 지급되는데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자격이 있다고 신고, 자체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신고된 사람들은 이렇게 지출하고 가족도,

○이종화 위원 관장님,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이종화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격수당 해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2만원을 넣고 이러는 것보다, 이걸 기본급으로, 물론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런데 이,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항목 조정을 하셔야 돼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런데 이 자격증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자격수당 이렇게 나갑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전산도 전산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도 행정자격이 있어서 모든 시설자격증도 다 자격증이 있으면 2만원씩을 지급,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닙니다. 그 업무와 연관해가지고 관련된 자격증만 줍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2만원씩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10년 넘어 근무한 사람도 계속 131만 1,762원에 식대 13만원, 교통비 12만원, 연장수당 2만 2,700원, 그다음에 휴일수당 9만원 이렇게 하는데 임용된 지 1년이 아직 안 되는 팀장은 팀장수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10년을 넘어 해도 그저께 들어온 팀장보다 20만원 가까이 적게 지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동안 계약을 할 때 호봉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좀 많이 안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 5월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회의도 하고 지금 우리 관련 조례도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것도 반영하고 계약기간도 3년인데 5년으로 바뀌야 되거든요.

조례 개정하면서 이런 호봉,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급이 오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관장님께서 그걸 잘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이게 그 부당하게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조직에서도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공통으로 5개의 구 도서관에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의 관리, 요즘은 모든 정보를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는데 그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각종 문화예술 강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를 기준으로 각 도서관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에 문화교실이라 해가지고 도서관사업과 무관한 문화행사 강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강좌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방식하고 예산 부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하고 안 맞는 사실은 강좌, 뭐 서예교실 같은 것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도서관은 영유아부터 태아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이 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예교실 같은 게 있고 그 외에는 조금 유아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교육과정하고 조금 연계가 돼야지만 그래야지 또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거기랑 독서교육하고 다 관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준비한 강좌를 들으러 오는데 일반 우리 주부들, 서예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강좌가 몇 가지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각 지금 자생, 각 동마다 그 프로그램 또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굳이 그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이유를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에는 지금 현재 150개 강좌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창도서관장이 얘기를 했듯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에서는 독서진흥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민들의 요구는 도서관에 와서 책도 보지만 강연도 듣고 공연도 보고 심지어 북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을 넣어달라는 민원까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나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좌를, 제 개인적으로 독서진흥에, 기본적으로는 독서진흥에 힘을 써야 되지만 이 강좌 부분을 저희들이 시민의 요구를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 강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독서회라든지 우리 도서관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227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책정이 돼가지고 지급되고, 강사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강사비는 이제 1회 강사 분들이 오시면 2시간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8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급되고 있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운영되는 회원들 관리는 누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도서관 자체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거기 문화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도 따로 있기 때문에 출석부 관리라든지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관리를 다 하고 있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개별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인원을 보고를 하고 대관비는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좌를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우리가 편성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우리 시 안에서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백화점이고 여성 그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도서관과 조금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적으로,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자리가 협소해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단체로 외부 쪽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그걸 함으로써 도서관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도서관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관련된 책이나 자료, 영화를 볼 수도, 지금 세계는 디지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으면 중장년층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청소년들은 어릴 때는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청소년이 되면 될수록 도서관을 안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한 번쯤 잡아서 지향적으로 어르신들이 계속 온다고 도서관이 발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저는 일단 519페이지, 의창도서관에 공용차량을 구입을 하셨어요. 이거는 경유차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걸 구매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던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이 우리 의창도서관에서 구입한 스타렉스는 사실은 우리 의창도서관에서 분관이 있습니다, 두 개관. 그런데 의창도서관에서 도서 구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 도서관에 분관에다가 책을 갖다가 운송하는 그런 차기 때문에 이거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소차는 조금 안 나온 걸로... ..

그래서,

○김상현 위원 다음부터라도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531페이지 그 건 관련해가지고 우리 주요 자산취득 현황 해가지고 품명에 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품명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거든요, 이거는 뭐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처음에 우리는 스타렉스를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고 더 구동성 있는 이 유틸리티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그거예요. 여기에 물품제조 구매현황에 보면 이렇게 스타렉스라고 표시를 하고 공용차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품명에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이거는 내나 같은 차 아납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 볼 때 좀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한참 찾아봤어요. 스포츠유틸리티가, 지금 여기 와서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작년에 예산 올릴 때 이쪽으로 해 놨던 걸 우리 직원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자료는 앞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료는 좀 일관성 있고 보기 쉽게 좀 작성을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각 도서관에 보면 용역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용역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금액 그다음에, 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용역기한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용역계약, 계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냐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우리 도서관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은 시설 부분하고 청소 부분 등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래서 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용역 부분이라면 엘리베이터 전문업체에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김상현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아, 예,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그 금액 1,000만원 이하의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업체가 좀 실질적으로 경험이 많든지 실적이 많아서 검증이 되어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감사서상에 나와 있는 1,000만원짜리 이상 용역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자입찰 하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전자입찰 할 때 제가 지금 쪽 한번 보니까 낙찰률이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87%에서 88% 정도 되는데, 여기는 90%도 된 것도 있고 심지어 100% 거의 99.9%짜리도 있어요, 전자입찰이.

예를 들어서 518페이지 그 룻... 아, 이거 상호는 얘기하면 그렇고, 상호대차서비스 택배 용역서비스 보면 예산이 1억 2,000이고 계약금액이 1억 1,900이에요. 27,000원 모자라는 100%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거는 왜 그런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상호대차 부분은 사실은 1억 2,000이라는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수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수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수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호대차라는 게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용역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처럼 택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지자체 기존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직영의 경우에는 일단은 대형차량, 차량이 필요하고 또 운전기사,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을 해가지고 가면 또 하청업체에게 다시 줘버립니다.

그러면은 너무 불성실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배를 선택을 했고 택배를 수의를 한 이유는 저희가 좀 인지도가 있는 택배회사, 그러니까 우체국이라든지 로젠이라든지 CJ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다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비교검토를 할 때 우체국에서는 우리 창원시가 너무 넓고 작은도서관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택배를 못 하겠다라고 불가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랬고, 로젠이나 CJ 같은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어가지고,

○김상현 위원 예,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참여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내역 근거를 좀 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거, 그다음에 직영으로 했을 때 직원 2명이 필요하고 트럭이 필요하다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가 필요하죠.

○김상현 위원 도서관 하루에 이게 택배 배송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건수로는 1,000건?

○김상현 위원 마이크 꺼주시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2018년도는 택배건수가 월 3,617건입니다, 그리고 권수로는 43,340권, 택배 권수로. 건수가 아니고 권수.

○김상현 위원 아니, 택배건수하고, 택배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데요?

아까 3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택배권수가 43,340건입니다.

권수가 아니고 한 건, 우리가 택배 하나,

○김상현 위원 4만 4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340권.

○김상현 위원 340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택배를 보내면 2,500원 정도 하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런데, 2,900원 정도, 우리가 책 무게에 상관없이 이거를 계약을,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렇게 돼, 책은 나가는 게 10건이 나가도 지금 계약금액이 일괄적으로 이번에 제안이 2,850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10건이 나가도 2,850원, 한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로 치면 각 그제 있습니다.

10kg부터는 6,500원, 우체국 같으면 6,500원, 로젠 같은 건 6,000원,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책 무게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1권도 사실은 시민이 필요하지만 10권씩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지금 44,340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2,85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억 2,600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연간계약이 1억 1,900이거든요. 이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43,340건은 1년 2018년도 건수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거라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2018년도 월 1,000만원 이상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상호대차 이렇게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실 때 아까 월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거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얘기가 안 맞아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연입니다, 연.

○김상현 위원 감사기간 동안, 2018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43,000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거 보낼 때 기록 다 작성하지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우리 거기,

○김상현 위원 그거 기록한 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택배 용지가, 예.

○김상현 위원 매일 몇 건씩 한 두 건씩 해가지고 아마 장부가 있을 것 같아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거 장부 대장 좀 한 번 카피해가지고 하나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용역, 계속해서 용역인데 이게 참 용역이 왜 그런지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낙찰률이 보통 87 점 몇 %에서 88%, 90%가 안 되게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데 유독 어디야, 519페이지에 보면 전기시설 안전관리 용역 그다음에 또 청사내 위생 관리 및 환경정비 해가지고 90%대더라고요, 519페이지에 있는 거는.

왜 그런지? 낙찰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0% 정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자입찰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자입찰 하잖아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2,000만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그러면 어쨌든 수의계약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낙찰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수의계약 같은 건 보통 10% 정도 이렇게 그걸 하고요.

전자입찰이 2,000만원 이상 될 때는 그게 또,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 본론이 뭐냐면 전자입찰 2,000만원 이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519페이지에 청사내 위생관리, 명곡도서관, 거기에도 보면 이게 금액이 2,000만원이 넘잖아요, 1억 6,000에 계약을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90만원, 90%, 나머지는 그래요, 딱 10%씩 저기를 했더라고요, 수의계약 한 거는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0%씩 했는데, 그러면 여기 명곡도서관 청소용역 여기 90%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럼? 수의계약이에요, 이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명곡도서관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입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에는 수의계약 2,000만원짜리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10% 정도의 낙찰률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1억 6,000짜리 전자입찰을 했는데 이것도 90%예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88.712% 정도 낙찰 됐습니다, 실제금액의.

○김상현 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명곡도서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명곡도서관에.

○김상현 위원 지금 519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한번 보세요. 88 점 몇 프로라고요? 내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나?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88.712% 정도입니다. 745.

○임해진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90%, 90%.

○임해진 위원 김상현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입찰을 하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87.745에 근접한 사람이 쓰면 무조건 87.745 다 쓸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2명을 임의적으로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거의 평균가를 내, 그럼 그게 9,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7.745에 근접한 게 2개가 뽑힌 게 이게 근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만일에 크게 뽑히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럼 거기 평균가에서 근접한 사람, 이게 입찰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임 위원님, 아는데, 왜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은 모르, 설명을 못 하고 우리 위원이 직접 설명을 하나, 이 얘기에요.

○임해진 위원 88.745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금액에 하는 게 아니야.

○김상현 위원 그래, 맞지.

○임해진 위원 이게 평균가 2개를 뽑아가지고 평균가를 하거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그게 낙찰 그,

○김상현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우완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김상현 위원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한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에 지역 업체를 좀 배려하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달라는 얘기고, 또 사회적 기업 예를 들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자입찰 시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서관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하나 제안 드리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잘 알아야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 업체에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 업체뿐 아니라 지역 업체 중에서도 제가 그때 작년 행감 때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판기 관리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예, 저는 사업소장님께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은 그 부지 안에 지금 회원도서관이 건립 예정으로 돼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건립만 그냥 해 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도서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서관 건립은 도서관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적인 절차까지는 도서관사업소에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그다음에는 본청에 주택정책과에서, 짓는 것은, 건립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복합행정타운이 8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추진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도서관이 들어설 거니까 지금쯤이면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서관을 어떻게 좀 디지털화, 좋게 이렇게 지을 건지 아마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북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이제 확보 확정이 됐고 한데, 사실상 우리 전체 도서관, 아, 창원시를 놓고 볼 때 회원구는 도서관 건립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회원도서관도 굉장히 많이 노후되었고,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도서관 건립이 필요 한데 도서관 건립은 사실상 200억 이상의 큰 비용이 드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받지 않고서는 사실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면에 대해서 완료가 될 때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국비도 요청을 할 겁니다.

회원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건립에 매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잘 돼있는 선진도서관들을 많이 견학하고,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지금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도서관을 새로 건립을 하니까 이왕이면 디지털화되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좀 복합문화공간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국회도서관이 지어진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쪽에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짓게 되면 우리 거를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맞습니다, 예.

○**임해진 위원** 그렇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북면도서관과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전국에 직원들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잘 돼 있는 도서관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임해진 위원**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우리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서 선생님들,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모아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페이지 방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적어놓았는데 방금 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건당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이게 언제부터 이래 바뀐 거예요, 입찰로? 전체 계약이죠, 그러니까? 1년치를.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수의계약입니다.

1년 수의계약 해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사용한 만큼,

○**이우완 위원** 아, 사용한 만큼.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금액이 1억 1,997만 3,000원이 되어있는데 계약을,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더 지불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중간에 추경에 조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건당 2,800원이라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2,850원입니다.

○**이우완 위원** 좀 많은 편 아닌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또는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택배판매를 할 때 일정 택배사와 계약을 하면 2,000원에서 2,500원 사이로 낮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아 보이는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타 택배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킬로그램이라든

지 다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여기서는 롯데택배에서는 무게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더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이거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택배 비로 얼마까지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이게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때는 뭔가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직영이라든지 또는 실버일자리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맡긴다든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택배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보다는 반납하는 게 더 택배비가 많이 지불되기 때문에 지금 대출만으로 상호대차만 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은 정확하게 2억에서 일을 멈춘다든지 아직 그거까지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아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모르는 분들은 전혀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사용횟수를 제한한다든지 한 명당 이런 것도 나중에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 520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는데 아직 구성 안 됐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들 지금 위촉받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통합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건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임무를 가져와야 될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522페이지 이것도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창원형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고 처리내용에 보면, 이미 이게 계획돼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계획이 있어왔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그동안 목표 달성된 내역 있죠, 그렇죠? 그 자료를 저하고 이종화 위원님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설현황을 규모하고 개관일하고 열람석하고 이 정도밖에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것 중에 프로그램실이 몇 개고 동아리실이 몇 개고 혹시 이런 거 빠져있나요? 있는데 기입이 안 돼 있는 것 있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아니,

○이우완 위원 아예 없습니까, 그런 거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아닙니다.

지금 층별 시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예, 여기가 서식이... ..

○이우완 위원 서식이 이래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이우완 위원 진해 기적의도서관에 보니까 프로그램실, 무슨 실, 무슨 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적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까지 같이 적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역시 527페이지에 보시면 열람석이 718석, 의창도서관에, 그리고 고향의 봄 도서관에 454석, 명곡도서관에 701석,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죠?

많은 편인데 거기서 학습실을 차지하는 이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한 1/3 가까이 되는데 일단 학습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다만 어떤 시험기간에 온다든지 그랬을 때 학습실, 즉, 의창도서관에 214석을 제외한 나머지 열람석이 학습실화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다목적홀이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열람석을 표현했을 때,

○이우완 위원 합해서 이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간에는 토, 일요일날, 토요일날이라든지 다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학습실을 공부방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다른 이런 공간에 있는 좌석은 학습실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관계없는데 자율열람석 같은 경우에 또 그 자리에서 책을 펼쳐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험지를 갖고 와서 하루종일 공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사실 시험기간 때는 공부하는 사람들 사실은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일부 자리를 갖다가 따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는 걸 따로 공간을 우리가 다시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리만큼은 개인공부 하러 오시는 이용자 분한테 거기 못 앉게끔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때는 특별히.

○이우완 위원 그게 필요한 이유가 도서관의 본래 용도에 맞게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시험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학습실 빼고는 다 자유롭게 책을 읽으러 온 사람들, 또는 토론, 동아리모임 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서관을 내주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528, 529쪽에 보시면, 도서대출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528페이지 아래에 일반도서가 112,070권, 아동도서가 136,417권, 그다음에 2019년도 오른쪽 페이지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일반도서보다 아동도서가 훨씬 더 많이 대출되고 많이 읽고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이런 대출현황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도서 구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아동도서를 우리 같은 경우 어떤 퍼센테이지를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아동이 조금 더 많이 계속 퍼센테이지 올라가고,

○이우완 위원 그럼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도서구입비의 한 40% 정도는 일반도서구입비입니다. 아, 아동도서구입비인데, 일반도서구입비 자체가 예산이 사실은 책 가격이 높습니다.

○이우완 위원 비쌉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러다 보니까 일반도서 1권 살 때 아동은 2권 정도 사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 일반도서보다는 낮지만 권수는 일반도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신문 인터뷰까지 통해가지고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론화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중리초 복합시설도서관이 연장운영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회원도서관장 유효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리에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관계 때문에 관리운영협의회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개방 조정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 협약서, 그러니까 당초 우리 BTL사업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복합시설운영협의회에 거치도록 조정시간을 거치도록 되어있어서 운영협의회에 상정한 결과 저희들이 불가 통보로써 지금 현재는 연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운영협의회라는 게 어떤, 누가 참여하는 협의회입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관리운영협의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리초등학교장하고 시청 소속 공무원 1명하고 또 교육청 소속 시설담당 1명, 중리초등학교 운영위원장 1명, 또 주민대표 1명, 중리초등학교 학부모대표 1명하고 또 민간투자사 BTL 운영사에 1명, 이해서 7명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거기에서 연장개방이 불가능하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불가, 지금 현재 개방시간은 학교측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문제가 있

다는 이유로 지금 개방시간 조정을 불가 통보를 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현재 평일날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2시간 반.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이우완 위원 토요일은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일반적인 것은 9시부터 6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또는,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안전을 이유로,

○이우완 위원 학교에 일반인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일요일 개방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그거하고 제가 또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 도서관에는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이우완 위원 맞죠? 그러면 이 파견되어있는 우리 사서는 그곳에서 중리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말입니다. 그렇죠?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도서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수업을 하고 독서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복합시설도서관의 규모를 봐서라도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파견한 사서 1명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청에서도 사서를 1명 파견해라, 그렇게 해서 평일에는 그 사서가 근무를 하고, 일정 부분 평일 중에서 하루, 이틀을 빼 우리 쪽 사서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학교시간을 오후 15시 30분까지 학교 전용 시간으로 하고 주민개방이 3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하고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고 또 중리 휴관일을 일요일을 휴관으로 잡아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도서관은 회원도서관은 월요일, 내서 분관은 금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상 휴관을 일요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주민에 최대한 개방을 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저도 뒤에 알았는데 매년 우리가 임대료로 7억원씩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7억이면 엄청 크죠, 그렇죠?

매년 7억씩 여기에 중리초등학교를 지은 민간업체에 7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그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낭비고, 또 운영비 또한 매년 도서관구입비가 한 7,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용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이신 우리 도서관사업소장님하고 안 그러면 저도 동석할 테니까 창원교육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도교육감을 찾아가든지 해서 이거 한번 답판을 보도록 합시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은 사실상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쪽에서 답변은 학생들 안전, 그다음 수업 방해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만 자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협약규정을 바꾸려고 하니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협약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회원도서관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 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원장은 중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 학부모 대표이시고 또 운영,

○이우완 위원 학부모 대표고, 운영위원회 바꿀 수 있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절대 꿈쩍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있고,

○이우완 위원 7명이라 그랬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우완 위원 7명 중에 그러면 4명이 찬성해야 됩니까, 5명이 찬성해야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2/3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5명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래서 사실은 중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리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서지역에 공공도서관다운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그 중리초등복합도서관은 학교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것이 저는 제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7억원씩 임대료 줄 것 없이 창원시에서 도교육청으로 기부채납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8년도까지 계속해서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이나 운영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자기 학교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 운영비를 부담을 하려고 할까,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현재 부담금을 7억씩 이렇게 계속 내고 있는데 만약에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우리가 3시 반 이후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 거의 권한마저도 또 교육청 쪽에 뺏겨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내서지역에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그 중리도서관은 학교도서관으로써의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협의회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도서관에 투입해야 되는 연간 도서구입비까지도 거기서 책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590쪽에 보시면 도서대출현황을 보시면 마산회원도서관하고 내서도서관하고 중리초도서관하고, 중리초도서관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도서구입비를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중리초복합시설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대폭 삭감, 예?

이용률도 낮은데 안 맞습니까? 대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7,000만원씩 책을 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 조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회원도서관장 유효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서회원도서관의 특성상 특화가 돼있습니다.

내서회원도서관 본관은 인문학을 특화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리의 내서 분관은 수학 계통의 도서를 대량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어린이에 대한 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간 도서를 구입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지역민이고 또 일반인들은 내서 분관이나 회원도서관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에서는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도서를 구입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우완 위원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를 많이 구입해 줘야 되는데 구입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든지, 활용도 높이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시간, 이용할 수 있는 개방시간 연장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늘리든지, 또는 거기에 교육청에서 사서를 파견해가지고 사서가 일과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독서수업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돼야 그게 우리가 책을 많이 사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교육청과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동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예, 열의를 다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강문선 관장님, 최학권 관장님, 배종광 관장님, 그리고 유효연 관장님, 박우식 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선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기업의 기술향상과 미래산업 진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발언대도 아니고 그 앞에서 하세요. 나왔다가 시간만 가니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에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백정한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백정한 원장님, 간부소개와 더불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백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진흥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류태형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다음 김종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다음 김현철 첨단항공방위산업육성팀장입니다.

다음 강영택 수소산업육성팀장입니다.

다음 김태원 인력양성팀장입니다.

다음 이은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치훈 전략기획본부장은 현재 창원 수소산업 및 H2월드 홍보차 2019년 ENTECH(엔텍) 베트남 참석을 위해 베트남으로 국외출장 중이며, 조정원 기업지원팀장은 창원시 창업펀드 조성 관련 서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행정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8건으로써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151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 등 총 10건이며 개별사항은 163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기본현황,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수소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및 충전소 건립, 첨단소재, 방위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그리고 우수 인재 육성사업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창원산업진흥원이 한층 발전하여 관내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위원장 김순식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에 위원입니다.

페이지 151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불용액 21억 3,900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5억 5,000 정도는 출연금이고 15억 9,000이 위탁사업비에서 발생 했습니다.

여기 출연금은 어디의 출연금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사업비에서 자그마치 15억 9,000, 60%까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설명이 길 것 같으면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운영 예산비용에서 주로 인건비, 전임 원장께서 공적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인건비와 경비를 합쳐서 1억 1,000 이상, 1억 2,0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인건비와 수소충전 시 하자보수충당, 즉, 천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야 될 금액에 대하여 2억 9,500을 충당, 출연금으로 했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이 4억 3,800입니다.

○박선에 위원 그럼 이게 출연금인데 이게 예산을 100억 가까이 잡아놓았잖아요,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박선에 위원 거기서 이렇게 발생했다, 그럼 이거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발생하면 계속적으로도 불용액 처리할 건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저희들 운영 예산이나 운영 예산 부분에서 일어나는 인건비나 경비적 측면은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이나 전임 원장께서 갑작스러운 공백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 건은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계속 이걸 잡아놓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

○박선에 위원 쓰지를 못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박선에 위원 그럼 위탁사업비는 60%나 도대체 왜 못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위탁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큰 위탁사업이 수소충전소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중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계획되어있던 성주 수소충전소는 그대로 계획이 됐는데 덕동과 죽곡동이 연기가 됐습니다.

법적 문제와 그다음 민원문제가 발생해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올해 집행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납을 했다가 올해에 다시 받아서,

○박선애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이걸 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이월에 잡는데 불용액으로 딱 해가지고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을 새로, 조금 또 다르네요. 어찌 됐든 이거 알겠고요.

그러면 페이지 154에 공사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 보면 동영종합건설에 건축건이 2건이고 관급자재가 4건이고 그다음에 전기가 1건입니다.

관급자재의 건축은 뭐며, 동영종합건설의 건축건은 뭐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영종합건설 건 성주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시의 요청에 의해서 수소충전소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복합융합단지로 시작을 했다가 실증단지로 되면서,

○박선애 위원 금액이 올라갔어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토지를 늘리고 옹벽 설치를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선애 위원 변경 사유에는 설계누락분 돼있네요, 설계누락분.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러니까 그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설계 초기에 그것까지 반영이 됐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을 했을 텐데 설계누락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관급자재분은 관급자재 가격변동분 반영을 한 겁니다.

○박선애 위원 이게 기제가 안 맞는 게, 원장님, 앞에서도 누차 다른 부서에도 지적이 됐지만 3,000만원 이상 증액분이라 했는데 여기 보면 3,000만원 이하가 4건이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3,000만원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모아서 뭐, 뭐, 뭐, 기타 등등 포함해서 관급자재에서 이렇게 총 3,000이 발생했다 모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3,000만원 이상이 안 되잖아요, 건별로.

건별로 괜히 많이 보이고 전체 7건이 전부 다 설계누락분이라고 착 착 착 해놓으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예산책정도 잘못하고 애초에 추정도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지연일 보전돼서 10일, 10일씩 보전을 해줬는데 이 자연재해는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 했습니까, 이 기간 중에? 이 기간 5월 10일 중에, 5월 10일부터 11월 5일 중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길래 2건이나 건축과 전기 부분에 2건이,

○창원산업진흥원장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 강영택 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온도가 35도가 넘게 되면 작업자들이 작업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애 위원 폭염으로 인해서 35도가 넘어서,

○창원산업진흥원장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그래서 폭염으로 인해서 10일 정도 작업이 연기가 된 내용을 표시를 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분이 아니라서 표시를 안 해야 되지만 이게 결국에 일정 연기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선애 위원 좀 상세히 하는데, 기왕 상세히 하면 자연재해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저도 폭염 아니면 폭우 예상은 했는데 그런 걸 조금 부가로 기록해도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155쪽에 운영위원회 현황 중에서 물론 다 수당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5회나 개최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이사회는 이렇게 자주 개최를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몇 년부터

몇 월까지의 기간입니까, 이게? 2018년 7월 1일부터,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9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

○**박선애 위원** 4월 15일까지, 그러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10개월 동안 5회를 했다,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럼 여기 기간과 단위 천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당? 단위도 좀 기록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여기 이사회 부분만 관련해서는 상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 드립니다. 횡수 그리고 위원 수,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참석자 수,

○**박선애 위원** 추천 방법, 위원 추천 방법까지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서면 자료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163쪽 봐주십시오. 산업진흥원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원장님이 올해 갑자기 공석으로 인해서 인력비 불용액도 발생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33명, 과부족이 무려 17명이에요, 말이 됩니까? 다 채용 했습니까? 부족한 인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 30일 현재 총 33명이었고 현재는 41명입니다.

○**박선애 위원** 41명, 그래도 9명이 부족하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왜 빨리 채용이 안 되는 거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조금 전에 있던 이사회에서 3월달에 저희들이 총원 50명으로 했고, 이게 2020년까지 저희들이 50명을 받았는데 지금 일이 많이 늘어나서 아마 연말까지 가면 50명 채울 거라고 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기본현황 구조를 이렇게 도표로 그릴 때 2020년까지 정원을 50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그럼 그런 것도 여기에 좀 설명을 밑에다가 공무원 파견 여기다가 별표 표시해가지고 '2020년까지 한해 50명 정원을 채용 확정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부족한 현원은 아님' 이런 것 좀 기재해 주십시오.

이거 와, 과부족 17명이나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하노, 이거 사람 죽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예, 이 기록 참 중요합니다, 그런 설명, 그리고 이거 채용 방법, 채용할 때마다 공개채용은 당연하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당연합니다.

○**박선애 위원** 채용방법, 그거 상세현황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애 위원** 지금 2018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채용한 인원들의 채용 기준 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현순 위원입니다.

저는 179페이지 그 밑에 수소충전소에 관해서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1호기가 있고 2호기가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준공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이현순 위원** 지금 이 수소차량이 현재 몇 대나 되고 있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금 창원시에 350대가 있습니다.

○**이현순 위원** 350대요. 1호기, 2호기에서만 수소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 이헌순 위원 그럼 에너지 공급은 지금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주로 울산 부생수소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렇죠, 그럼 트레일러로 오는 거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튜브 트레일러로.
○이헌순 위원 그 트레일러 1대에 운반할 수 있는 그 수소에너지양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보통 200kg에서 300kg 정도.
○이헌순 위원 제법 되네요.
그러면 버스 1대당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kg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30kg입니다, 버스 1대당.
○이헌순 위원 30kg밖에 안 돼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일반 승용차는 5kg입니다.
○이헌순 위원 5kg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충전하게 되면 버스 1대가 충전할 때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일반적으로 1대 당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헌순 위원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제가 여쭙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분인데 또 30분을 충전하고 나면 연속적으로 충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압이 조금 못 해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낮아서, 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럼 좀 불편함이 없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3대 한 350대 중에서 3대가 시험운영인데 실제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헌순 위원 그럼 버스는 3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그 기사님들이 사실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6월 6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까, 이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렇게 하려면 이중으로 저희들이 1대가 아닌 2대를 충전소에 압축기를 설치할
해야 되는 비용이,
○이헌순 위원 아, 압축기가 부족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한창 수소차가 개발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CNG에 비하면, CNG는 거의 5분에서 8분 사
이에 1대가 충전이 가능하다 하거든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렇게 볼 때는 이거 수소차가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일단 충전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각 압축기 제작회사에서도 이
걸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직 0.1% 미만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 이거 시비는 금액이 잘못 표기가 된 거지요? 지금
75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숫자가 잘못된 거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맞습니다. 750... .. 아, 75억.
○이헌순 위원 그렇죠? 표기가 잘못된 거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이헌순 위원 이거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죄송합니다.

○**이현순 위원** 행감 자료니까 이거는 수정해서 잘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174페이지 보시면 수소에너지와 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죠? 내나 성주동 불모산에 지금 이렇게 2단계에 보면 1단계는 지금 충전소가 있는 게 1단계고, 그렇죠? 2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울산에서 수소에너지는 현재 만드는 게 뭐로 만들고 있습니까? 내나 CNG로 여기처럼 똑같이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생수소라고 해서 울산에서 만드는 거는 다른 화학연료를 만들면서 부가적으로 생긴 수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순 위원** 그러면 울산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서는 한마디로 CNG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그 재료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맞습니다.

○**이현순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오는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게 지금 실제 CNG에서 나오면 메탄하고 물하고 합쳐서 수소와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3단계 있는 CO2가 저희들이 3단계에서 CO2를 재처리를 하겠다고 이 실증단지에서 큰 축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현순 위원** 처리방법은 아직,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처리방법은 2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CO2만 표집을 해서 CO2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CO2를 다시 물하고 연계해서 수소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실증단지 2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순 위원** 요즘, 아까도 잠시 들어올 때 말씀드렸지만 수소차가 지금 사건사고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이현순 위원** 여기 할 때 여기 공장을 지을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이현순 위원** 이거 지을 때 혹시 폭발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주위에 CNG도 같이 불모산 옆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CNG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장을 세우는 데 대한 어떠한 폭발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 운영 시에 처음 시점부터 저희들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이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거의 한 30분간에 걸쳐서 매일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가스, 그다음에 저장용기 그다음에 충전소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다음에 실제 가스누출검진기까지 다 동원해서 매일 30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걸 보고되고, 이상이 없으면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현순 위원** 한마디로 충전을 하고 나면 한 30분 정도가 남으니까 그 시간에 또 다시 재점검을 해서 하시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것도 있고 하루를 시작할 때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현순 위원**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370개의 충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주 위험성 여부가 가장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창원시에서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크게 너무 무리하게 빨리 가시는 것보다 안전을 요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현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폭발위험성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원인이 뭐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금 폭발이라는 게 2건 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심영석 위원** 예, 2건 다 말하는 겁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첫 번째 강원도, 아직 2건 다 정확하게는 원인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나오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지금 보시는 견해가 있을 건데, 그 폭발 원인이. 그럼 견해라도… ….

○**위원장 김순식** 소장님, 본인 견해가 어떤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지금 강릉 건은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소충전소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소충전소고 거기는 수소용기에 대한 실증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용기통 자체도 저희들은 한 통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접합, 소위 용접을 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 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건은 저
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가 린데사 겁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일어났던 건 넬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그것도 압축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모든 걸 연관해서 봤을 때
저희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안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예정지가 돼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런 사고가 난 이후에 사실은 추수 앞
선전을 할 때는, 홍보를 할 때는 폭발사고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의구심이 생
기고 반대 주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앞으로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대책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
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2건의 원인이 나오면 따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한번 우리 상임위에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러면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207페이지에 4번항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에서 제가 작년 시 예산 잡을 때 창원대학교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취업교육 시키고 그러면서 장학금을 한 2,000만원 지급하는 문제로 해
서 문제를 삼아서 예산에 수정이 안 되면 통과 안 시키겠다고 그래서 예산 그 계획을 사업을 수정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조건부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변경을 시켰고, 지금 어떻게 창원대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
리겠습니다.

지금 창원대학교에 취업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창원보육센터에서 하는 거 맞죠,
운영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사업이 아마 모바일 앱 사업하고 그다음에 창원보육센터 교육이 있는데 아마
모바일 앱 사업인데 207페이지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

○**창원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종호** 예, 창원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종호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방위산업대학원 사업에서 장학금 잡아왔던 거 그거,

○**심영석 위원** 2건 있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종호** 예, 장학금 잡아왔던 것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때 위원
님 말씀하신 것 그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렸고, 그 부분은 다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대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창원대학교 꼭 주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지금 관내에 경남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 2군데에 이 상황을 해서 학과 개설을 하라고 요청을 한 상
태고요.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 개설은 했지만 신입생을 좀 모집을 못 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대 같은 경우는 2학기에 1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일단 2학기에 아마 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내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학금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빼고 그 부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뻘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창원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종호 뻘입니다, 이미.

○심영석 위원 따로 변경은 안 했고요?

○창원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종호 예, 그때 위원님 보고 드리고, 드릴 때 그때 아예 사업 공고 낼 때 장학금 부분은 다 뻘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럼 그 이후에 학교에서 학업계획을 다 수요를 해서 올리실 것 아니에요? 계획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종호 계획서를 못 받았던 게 사실 1학기에 공고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 창원대는 준비가 좀 늦었었고요.

준비가 늦어서 2학기부터 일단은 자기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웠지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차 사업공고에서 한 업체, 그니까 경남대학만 들어와서 유찰이 되었고 지금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내용은 확정이 되고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감사합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 국에 이관이 됐더라고요.

미래전략산업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정원은 언제 정원을 만들어놓은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이게 아까 말씀,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면 총원 50명 기준으로 만든 조직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3월 15일날 저희들이 이사회 당시 통과하고 이 인원은 4월 30일 인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향후 2020년까지 50명을 갖다가 채용을 하겠다고 여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업무가 중복이 되는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업일자리지원팀하고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 또 미래산업기획팀하고 미래전략산업과하고 이래 일이 중복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에서 본인들의 업무 중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 쪽으로 넘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일자리에서도 많은 일의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실제 창원 일자리 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창원 일자리 관해서 새로운 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이런 것 찾는 부분 등등 해서 뒤쪽에 나와 있는 각 부서별 업무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 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특화된 산업진흥원의 일

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창업보육센터 이거를 왜 산업안전, 아, 우리 공단에서 이걸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일단 창원시에는 창업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팀은 있어도 창업팀이 없다 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더 전문적으로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하려면 더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부서 창업일자리지원팀, 미래산업기획팀은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물품제조·구매 SPC산업의 위에 거랑 밑에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조금 차이가 나는지.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거와 밑에 것의 차이는 그겁니다. 팔용동은 시내 중심에 있어서 차량이 많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성주동은 좀 차량이 적게 방문을 해가지고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는데 만약에 폭발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는 제조사나 모든 데에서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수소전문가가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선정할 때 시스템 업체별로 폭발 범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폭발범위가 설계가 되는 업체는 폭발범위를 설계를 해서 주는데 실제적인 설계의 범위를 보면 폭발 반경 약 50m 정도가 일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50m,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정도가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병호 위원** 용량에 따라서 그 폭발하는 우리가 가진 압축기가 안에 있는 양만 50m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방호벽을 설치할 합니다.

방호벽이 설치가 되면 그 범위가 충전소 구역 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설계를 반영할 때는 충전소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211페이지 첨단방위 대학원 지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학 산업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3월부터 정규 학교에서 받아서 그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3월에는 없고 8월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대학교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원을 할 테니까 만들어라고 한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대학에서 먼저 만들고, 만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 조건에 대학원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원생 몇 명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보통 5명에서 10명까지 연 인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2억을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부분인데 대학원 5명을 2억을 지원하면 모든 학비를 다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은 없습니다.

장학금이 없고 운영하는 인건비와 교재, 거기에 관련된 부가시설 이런 비용으로 다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인원만 모집하면 우리 시가 도와준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대학원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첨단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각 기업들의 요청 중에 하는데, 큰 두 가지가 하나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재교육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직원을 뽑을 때 아무래도 이 하이텍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8월달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창원대학교에서 모집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창원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일단 첨단방위산업분야에 있는 창원 관내 기업에 저희들의 좋은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의 출신을 뽑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의 위상도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럼 이분이 5명에서 10명이 나오면 졸업을 하고 창원시에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전병호 위원 만약에 이게 2학기 때도 모집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이거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선에 위원님.

○박선에 위원 이거 공통사... .. 아닙니다. 페이지 167쪽에 보시면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지난해 저희들이 2018년도 행감 때 경영실적뿐만이 아니고 기업윤리라든지 장애인고용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성과를 봐서 해라 했더니 반영을 했네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에 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1점, 기업윤리는 2점, 일자리 창출은 10점인데 일자리 창출 10점,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경제여건이 여러모로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너무, 10점이면 강소기업 선정에 완전 딱 영향 그대로 미치는 점수일 것 같은데, 참 반영해 주고 그대로 저희들 지적사항을 한 거는 참 감사하는데 장애인 1점과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박선에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06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내역하고 그다음에 31억이네요, 예산이. 31억 5,000만원이죠? 여기 사업비가. 207페이지, 20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거 사업계획서와 현재 추진내역, 그렇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3억 1,000입니다.

○박선에 위원 아, 3억 1,000, 이거 현재 추진내역 서류를 서면자료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박선에 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저 자료 제출 좀 하려고요.

수소충전소 지금 2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수입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지출 현황, 준공 하고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번 좀 뽑아가시고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일요일날 아직까지 근무를 안 합니까, 충전소는?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6월 6일부터 일요일날 성주 충전소는 시작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하고 있고?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진흥원 가족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감사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결산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 김순식 문순규

박선애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현순 임해진

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

마산회원도서관장 유효연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정책기획팀장 김종호

첨단항공방위산업육성팀장 김현철

수소산업육성팀장 강영택

인력양성팀장 김태원

경영지원팀장 이은열